백중 입재…진우 스님 "마음 비워야 극락"

7월 20일, 조계사 백중 입재서 법문
백중 의미·불제자로서 삶 설명
"인연 따라 오고 감이 세상 이치"
"보시는 집착 내려놓는 것" 강조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백중 기도 입재식 초청법사로 법상에 올라 백중의 진정한 의미와 불제자로서 수행의 삶에 대해 법문했다.

"태어났으니 죽고, 건강했으니 아프고, 즐거운만큼 괴로움도 커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성냄도 줄어들고 어리석음도 사라집니다."

불기 2569년 백중(우란분절)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백중 기도 입재식이 열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백중 기도 입재식 초청법사로 법상에 올라 백중의 진정한 의미와 불제자로서 수행의 삶에 대해 법문했다.

"백중은 특별한 날"이라고 법문을 시작한 스님은 "부처님은 7월 보름날 백중에 수많은 스님을 초청해 재를 올리면 지옥문이 열려 죄를 면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각종 공양과 가르침을 통해 지옥중생들이 이를 알아채면 지옥문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재를 백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나도 편안해지는 경지 '이고득락' 정토에 이른다"고 백중의 의미를 설명했다.

백중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보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에 대해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스쳐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집착하고, 계산하고, 지키려 애쓰는 동안 괴로워진다는 것이다.

스님은 "즐거운만큼 괴로움도 커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탐진치 삼독심을 없앨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삼악도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이유가 삼독심에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삼독심이 업을 키우고, 업대로 고통이 따라온다. 인과업에 따라 욕심을 줄이면 화도 줄어들고, 어리석음도 사라지고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진우 스님은 업장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행을 할 것을 권했다. "아상을 내려놓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인연 따라 왔으니 감사히 받고 또 사라지면 인연 따라 담담히 보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설명한 진우 스님은 "좋은 곳에 태어나더라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극락은 무너진다. 마음을 비워야 진짜 극락"이라고 했다.

이날 스님은 방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님은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함께 내 욕심을 줄이는 일"이라면서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참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순간 삼독심을 놓고 업장도 덜어내게 된다. 진정한 방생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대웅전을 가득 채운 불자들에게 "삶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많지 않냐?"고 질문했다. 스님은 "어떤 이는 노력해도 가난한 것 같은데 어떤 이는 앉아서도 부를 얻는 것 같다. 이는 복과 업의 차이"라면서 "업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괴로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고, 법문 듣고, 수행하며 복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분별심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결국 괴로움이 줄어든다"면서 "나와 가족, 이웃이 모두 평안해지고 사회와 세상도 불국정토로 향하게 된다. 백중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축총림 통도사도 7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9년 백중(우란분절) 49일 천도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백중기도 법회는 오는 9월 6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문을 끝으로 회향한다.

영규대사특위, 조헌 선생 탄신제 참석

7월 22일, 우저서원서 붕우유신 정신 기려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800의승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태진 스님, 이하 영규대사특위)가 7월 22일 김포 우저서원(牛渚書院)에서 열린 조헌 선생 탄신제에 참석해 붕우유신(朋友有信)의 뜻을 되새겼다.〈사진〉

이날 영규대사특위 대표로 참석한 종회의원 지인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함께 순국한 영규대사와 조헌 선생의 역사적 인연을 기리고 종교를 초월한 연대와 희생의 의미를 새겼다.

지인 스님은 "두 분은 종교를 달리했지만 국난 앞에서 하나가 돼 싸운 대표적 역사 인물"이라며 "그 정신을 기리는 이 자리에 불교계를 대표해 함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축하 화환에는 좌측 '대한불교조계종 영규대사 후손 일동' 우측 '붕우유신 중봉 조헌 선생 탄신제 감축'이라는 문구를 담아 불교계의 예우와 존경의 뜻을 담았다.

영규대사특위는 금산전투에서 순



국한 영규대사와 800 의승군의 명예회복과 역사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전규호 씨가 정리한 전승업 선생의 유고는 칠백의총에서 그동안 누락돼 온 의승군의 역할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 사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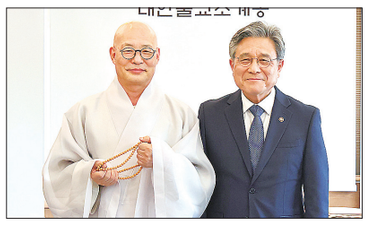
영규대사특위는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일부 유림의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 속에서도 역사 자료에 기반한 설득을 통해 인식 개선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이번 탄신제 참석은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림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완화하고 나아가 붕우유신이라는 유교적 가치 아래 종교 간 역사적 연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국가유산관람료 지원 아닌 보전을"

진우 스님, 정부·정치권에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유·무형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이 지원 아닌 '보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7월 18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고견을 나눴다.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서 사찰과 스님들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하고 "국가 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 유산이 50%에 달한다"면서 "사찰 내 산림도 스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관람료 면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원 명목의 예산으로 행정적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한 스님은 "지원에서 보존 관점으로 전환한다면 사찰이 더욱 안정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을


진우 스님은 7월 22일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7월 22일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의 예방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했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로 봐야지 종교적으로 분류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사찰 국가유산관람료는 지원이 아닌 보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불교전통문화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 청장은 "불교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임은호 기자

선명상 프로그램, 전국 31개 사찰·기관서 만난다

미래본부, 조계사·서고사 등서
선명상 대중화 거점 역할 기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선명상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사찰(기관) 모집'에 서울 조계사와 세종 광제사, 전주 서고사 등 31곳이 선정됐다. 전국 곳곳에서 선정된 사찰 및 기관은 선명상 대중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7월 21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모집에는 전국 사찰들이 참여해 선명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여건과 공간, 그리고 선명상을 체험하거나 시작하고 싶은 일반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31곳을 선정했고 현재 7곳 이상의 사찰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프로그램 운영 사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정 사찰과 기관 지도자스님과 실무자들은 7월 17일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진행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종단의 지원을 통해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1시간 과정), 선명상 입문 프로그램(4주 입문 과정, 집중 2박3일 과정) 등을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말부터 직접 운영하게 된다. 선명상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 지정을 통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본부는 선정 사찰(기관) 프로그램 홍보, 운영매뉴얼 제공 등을 지원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도자도 파견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본부는 운영 사찰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성원 스님은 "선정된 사찰들이 선명상 대중화의 거점으로서 선명상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의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 등은 미래본부 선명상 홈페이지(www.seonmeditatio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690 임은호 기자

